



## 제 5 회 과학기술자대회를 마치고

—건의 사항과 과학기술센터 건립을 중심으로—

분회부회장 공학박사 김 동 일

민족의 중흥과 조국의 근대화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국민들의 올바른 정신자세가 기본이 되겠지만 실천면에서 핵심이 되는것은 선진국의 혁신 기술을 도입 소화함과 동시에 우리의 창의력으로 이를 개량하고 또 새 기술을 창조함으로써 자립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라 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국내 과학기술계에서는 5년전부터 매년 전국 과학기술자대회를 개최하여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백년대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함과 동시에 공토자에 대한 과학기술상과 아울러 과학기술계의 단결과 사기를 진작하여 왔는데 금년에는 제 3회 과학의 날인 지난 4월 21일 제 5회 대회를 가지게 되었다.

특히 이번 대회는 1970년대를 맞이하는 과학기술계의 각오와 결의를 표시하는 뜻깊은 대회라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본대회의 과제의 업적을 되새겨보고 또 아직도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여 보고져 한다.

1966년 발명의 날을 기하여 열렸던 제 1회 대회이래 정부 및 국회에 건의한 내용을 요약하여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제 1 회 : 1. 과학기술진흥법을 제정할것
- 2. 과학기술자의 처우를 개선할것
- 3. 과학기술회관을 건립할것
- 4. 국무위원을 장으로하는 과학기술전담 행정기관을 설치할것

- 제 2 회 : 1. 과학기술자의 처우를 개선할것
- 2. 과학기술진흥재단을 발족시킬것
- 3. 정부의 연구투자예산을 국민총생산의 1% 이상으로 할것
- 4. 민간연구비에 면세조치를 할것
- 5. 국회에 과학기술 분과위원회를 설

치할것

- 6. 과학기술회관의 건립을 촉진할것
- 7. 과학의 달을 제정할것

제 3 회 : 1. 과학기술회관 건립추진에 적극 협조할것

2. 과학기술자의 처우개선제도를 확립할것

3. 과학예산을 대폭 증가하며 민간연구를 조장할것

4. 국내 기술용역을 육성할것

5. 연구비에 대한 예산회계법을 개정할것

제 4 회 : 1. 과학기술회관건립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확보할것

2. 과학연구비의 국제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의 우선심의 제도를 채택할것

3. 과학기술자의 등용과 아울러 국내 기술용역을 활용할것

제 5 회 : 1. 해마다 건의하는 과학기술회관을 금년에는 꼭 실현시킬것

2. 정부전체예산에 대한 과학예산의 비율의 축년감소의 경향을 시정할것

3. 학회보조금과 연구 교부금을 대폭 증가 할것

4. 기술직 뿐만 아니라 일반관리직에도 과학기술자를 다수 등용할것

이상의 건의사항을 요약하면 대개 다음과 같은 10개 조항으로 구분 할 수 있다.

- 1. 과학기술 진흥법의 제정
- 2. 과학기술 전담부처와 기구의 강화
- 3. 과학기술자의 처우개선과 등용

4. 과학기술 예산의 GNP 또는 정부총예산에 대한 비율의 국제수준화
5. 과학기술센터의 건립
6. 국내 기술용역의 활용과 육성
7. 연구비에 대한 예산회계법의 개정
8. 과학기술 진흥재단의 발족
9. 민간 연구활동에 대한 면세조치와 조성
10. 과학의 달의 제정

이상 10개 조항중 과학기술 진흥법은 1967년 1월 16일자로 제정공포되었고 과학기술처가 동년 4월 21일에 발족하였으며 과학의 달이 4월 21일로 제정되었고 민간 연구활동에 대한 면세조치가 일부나마 실시중에 있음은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그밖의 조항에 대하여서는 과학기술처를 비롯한 관계당국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인정은 되나 아직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하여 일일히 상론할 여유는 없으나 특히 우리들이 아쉽게 생각하는것은 해마다 건의를 되풀이 하였는데도 아직도 실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과학기술회관(센터)의 건립문제라 하겠다.

본래 이 회관문제는 理, 工, 農, 醫를 포함한 120여개의 학회와 기술단체를 수용함과 동시에 민간 과학기술활동의 총본산이 될 과학기술 센터를 수도 서울에 건립하려는 것인데 그간 박대통령각하의 격려도 있었고 각학회를 통한 기금의 모집도 있었지만 적당한 대지의 물색이 여의치 못하여 아직 기공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일본에는 동경의 과학기술관을 비롯하여 대판 나고야등 주요도시에 과학기술 센터의 고층건물이 건립되어 있는데 그경위를 살펴보면 대지는 시에서 기증하고 건축비는 시가 30%, 부 또는 현이 30%를 부담하고 나머지 40%만을 민간이 부담하고 있다. 이런 점으로 볼때 이문제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이해와 협조가 아쉽게 생각되며 또

한 정부의 보조금을 장악하고 있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회의 용단이 요망된다.

도리켜 보건데 8.15 해방이후 우리 과학기술계는 각분과 학문별로 학회의 창립과 발전을 위하여 그야말로 비참한 봉사활동을 계속하여 왔던것이다. 우리들은 일본이나 구미각국의 학회활동이 얼마나 활발하며 또 학회가 과학기술 발전의 모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해방후 각대학의 문이 열리자 마자 각학회 창립에 심혈을 기울어왔다. 가난한 학자들이 푼돈을 모으고 재계의 명사들을 역방하여 구걸하다시피 하여 찬조금을 해마다 거두어서 학술발표회와 학회지의 발간을 계속한다는 것은 「우리도 남의 나라와 같이 학회를 발전시켜야 하겠다」는 애국적 사명감이 없었던들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세상에 어려운 일도 많겠지만 학회의 유지처럼 어려운 것은 없다」는 것이 역대학회 관계자들의 일치된 체험담이다. 따라서 현재까지도 각학회는 번번한 사무실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있다.

이런실정을 잘알고 있기때문에 우리 과학기술계는 해마다 과학기술회관 건립을 건의 하여 왔던 것이다.

과학기술회관을 건립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를 거둘수 있다.

1. 100여개의 각 학회를 회관내에 수용하여 학회활동을 지원한다.
2. 각학회가 회의실, 연구발표실, 강당등을 공동사용 할 수 있다.
3. 공동 과학기술도서관을 설치한다.
4. 각 학회 및 산학간의 교류와 정보교환을 원활히 한다.
5. 컴퓨터등 최신 연구기재를 공동 설치한다.
6. 국내 및 국제학술회의 장소를 제공한다.

7. 국내 우량 공산품을 전시한다.
8. 외국상사의 신개발 기계장치 및 공산품을 전시한다.
9. 내의 과학기술자에 대한 숙박소와 후생 및 오락시설을 갖춘다.
10. 수익금으로 연구개발기금을 마련한다.
11. 현재 사무실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각학회의 대내적 또는 국제적 체면을 유지한다.
12. 각학회의 인건비와 임대료등의 경비를 절약한다.
13. 청소년과 일반 국민에 대한 과학지식의 보급과 혁신기술의 소개등 제반 과학기술의 활동을 활발하게 한다.
14. 민족중흥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참여의식과 사기를 앙양한다.
15. 일반국민과 외국인에게 과학기술의 진흥을 통한 조국근대화의 모습을 과시한다.
16. 과학기술에 관한 제반조사 업무를 실시한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20여개의 지역별 단체들이 자기회관을 갖고 활발히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별표참조) 우리가 회관건립을 요망하는 것을 남이 가졌으니까 우리도 가져야하겠다는 통속적인 것은 아니다. 회관을 가짐으로써 비로써 우리

가 과학기술진흥의 근간이 되는 상기와 같은 효과를 거둘수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는 해마다 이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신청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처에서는 이를 채택하여 그 예산을 청구하고 있으나 경제기획원 예산당국의 종합심사에서 삭제되기 때문에 아직 한번도 국회에 제출되는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전국과학기술자 일동은 미약하지만 1인당 200원 이상의 특별회비를 납부하여 회관건축기금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것은 그들의 성의표시에 불과하므로 건축비의 대부분을 정부보조금과 일반 업계와 재계의 창조금에 의존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상과 같은 회관건립문제는 이번 제5회 전국 과학기술자대회에서 채택된 건의 문중에서도 가장 중점적임을 감안하여 70년대를 맞이한 정부와 국회는 이것을 실현시키므로써 국내과학기술계의 숙원이 달성되는 동시에 조국근대화 작업의 기본이 되는 과학기술진흥활동의 총본산이 될수 있는 전당이 우리수도에 웅장한 모습을 나타나게 되기를 기대하며 또 이에대한 각학회와 전국의 과학기술자 일동의 집소성대의 원칙과 대의에 입각한 열성적인 지원이 있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맺는다.

별표 서울시내의 기존회관

1. 예총회관	2. 신문회관	3. 자동차회관	4. 교육회관
5. 건설회관	6. 체육회관	7. 노동회관	8. 철도회관
9. YWCA 회관	10. YMCA 회관	11. 부녀회관	12. 양지회관
13. 대서사회관	14. 기독교회관	15. 어린이회관	16. 청소년회관
17. 여성회관 등등			